

효성, 풍력발전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독일 DEWI-OCC 인증 통과 ... 3MW·5MW급 기술개발도 박차

효성은 독일에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2MW급 풍력발전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8월3일 효성 관계자에 따르면, 효성은 풍력발전시스템의 설계·제작 및 실증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해주는 독일의 국제인증기관 DEWI-OCC(Offshore and Certification Centre GmbH)의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을 통과한 2MW급 풍력발전 시스템은 세계 대형 풍력발전기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현문 중공업 부문장은 “풍력산업 경쟁력은 기술의 국산화가 핵심”이라며 “앞으로 3MW 및 대용량의 해상용 5MW급 기술 개발도 조기에 완료해 수요처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과 기술로 세계적인 풍력기기 제조기업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2M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제인증 획득으로 수입에 의존해온 풍력 발전설비의 국산화를 앞당겨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하고, 연간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세계 풍력발전 시장 진출을 가속할 발판을 마련했다.

풍력발전은 2008년까지 국내에 276MW가 설치됐고 앞으로 5년간 2200MW의 신규 설치가 예상되는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03>